

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,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'해누리호' 취항

- 해기사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 여건 개선 및 교육 기반 확충 기대

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(금)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(부산 영도 소재)에서 3,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'해누리호'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해누리호*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 시설,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.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, 5개 교육청(경북·경남·인천·전남·충남)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'해누리호'를 새롭게 건조하였다.

* (총톤수) 3,206톤, (선체길이) 90m, (폭) 15m, (최대 승선인원) 110명

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*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,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.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,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.

* 한국해양마이스터고, 울릉고, 경남해양과학고, 인천해양과학고, 완도수산고, 충남 해양과학고

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"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"라며, "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한지용 (044-200-5851)
	소득복지과	담당자	사무관	박혜진 (044-200-5463)

참 고

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(해누리호) 현황



건 조 현 황

사업비/기간	420억 원/2022 ~ 2025(4년)
조선소	중앙해양중공업
총톤수/승무정원	3,206톤/110명(승무원/교원 26, 실습생 80, 인솔교사 4)
주요치수(m)	길이 89.5 x 너비 15.0 x 깊이 8.2 x 흘수 5.3
주기관(최대속력)	3,150kW(16.0노트)
특수장비·시설	선박조종시뮬레이터, 해상안전훈련장, 해양드론교육장 등
항해구역/실습어법	원양/트롤